



반도체 수급난 속에서도 지난해 수입차가 28만대가 넘게 팔리면서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세웠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작년 연간 판매 8만대를 넘어서며 7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를 지켰다. 사진은 베스트셀링 모델 벤츠의 E 클래스. <광주일보 자료사진>

수입차, 불황은 없다

반도체 수급난에도 지난해 국내 판매 28만대 돌파 '굳건한 1위' 벤츠 한국 시장 진출 후 첫 8만대 달성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작년 수입 승용차 판매가 전년보다 증가하면서 28만대를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한국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8만대 고지에 올라서면서 브랜드 판매 1위 왕좌를 굳건히 지켰다.

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국내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테슬라 제외)는 총 28만 3435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7만6146대) 대비 2.6% 증가한 것이다.

특히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연간 판매량이 28만대를 넘어선 것은 수입자동차협회가 집계를 시작한 1987년 이후 처음이다.

브랜드별로 보면 메르세데스-벤츠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8만976대를 판매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한국 시장 진출 이후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8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이에 따라 벤츠는 7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 왕좌 자리를 지켜냈다.

벤츠의 뒤를 이어 BMW는 전년(6만5669대)보다 19.6% 증가한 7만8545대를 판매했다. 아우디는 전년(2만5615대) 대비 16.4% 감소

한 2만1402대를 판매해 3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폭스바겐(1만5791대), 볼보(1만4431대), 미니(1만1213대) 등 순이었다.

지난 한 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링 모델은 역시 메르세데스-벤츠의 럭셔리 비즈니스 세단 E-클래스 모델이었다. E-클래스는 총 2만 8318대가 판매됐는데, 트림별로 보면 E 250 1만 2172대, E 350 4매틱(MATIC) 1만601대 등이 인기가 높았다.

앞서 벤츠의 10세대 E-클래스는 지난해 11월 누적 판매량 20만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는 국내 수입차 시장 최초로 '단일 모델 20만대 판매'를 달성한 것으로, 그만큼 국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2위는 BMW 5시리즈로 2만1166대, 3위는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1만3206대)로 파악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수입차 판매가 늘었다. 지난해 광주-전남의 수입차 등록 대수는 1만1222대로, 전년(1만955대)보다 2.4%(267대)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주에서는 개인 5031대, 법인

559대 등 총 5590대의 수입차가 판매돼 전년 5714대에 비해서는 소폭(-2.2%) 감소했다.

반면 전남지역에서는 지난해 개인 4379대, 법인 1253대 등 총 5632대의 수입차가 판매돼 전년(5241대) 대비 7.5%(391대)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내 수입차 중 연료별 판매를 보면 가솔린차는 13만9821대(49.3%), 하이브리드차는 7만 4207대(26.2%), 디젤차는 3만391대(11.7%), 전기차는 2만3202대(8.2%),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1만3114대(4.6%)가 팔렸다.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66.0% 급증한 반면, 가솔린차는 1.6% 증가하는 데 그쳐 전기차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디젤차는 경우 가격 상승에 따라 판매량이 15.3%나 감소했다.

국가별 브랜드 판매량은 유럽이 24만1449대(85.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미국 2만 4995대(8.8%), 일본 1만6991대(6.0%) 순이었다.

유럽 브랜드 판매량이 전년 대비 7.4% 증가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 브랜드는 각각 18.7%, 17.3% 감소했다.

수입차협회 관계자는 "반도체 수급난에도 일부 브랜드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다양한 신차 출시로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그룹, 협력사에 2조3766억 조기 지급

은누리상품권 구매 등 상생 활동

현대자동차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은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상생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2조3766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설 연휴 전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월) 밝혔다.

이번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현대제철·현대건설·현대오일에너지·현대위아·현대트랜시스 등에 부품 및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6000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협력사들은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예정된 지급 일보다 최대 27일 앞당겨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고금리 상황 속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으로 협력사들의 자금 수요가 설 명절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1차 협력사들도 설 명절 전 2, 3차 협력

사들에게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에 수혜 대상을 늘리고 대금 조기 지급의 효과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해왔으며,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각각 1조4402억원, 1조8524억원의 대금을 조기 집행한 바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고금리에 따른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자 현대차 협력사에 납품대금 3531억원을 조기 지급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또 전통시장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설 연휴 전 은누리상품권 약 95억원을 구매한다. '임직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임직원들이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힘을 보탬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맞아 협력사들의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며 "고금리로 힘든 상황 속 협력사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쌍용차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모델 출시

쌍용차는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모델(사진)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 모델에는 가솔린과 LPG 연료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바이 퓨얼(Bi Fuel)' 방식이 적용됐다.

하이브리드 LPG 모델은 가솔린 모델 대비 연료비가 3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165마력의 성능을 내고, 주행 시 LPG를 모두 사용하면 가솔린 모드로 자동 전환된다.

가솔린(60ℓ)과 LPG(58ℓ) 연료탱크를 모두 채우면 최대 10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쌍용차 관계자는 "사동 시 LPG가 아닌 가솔린을 사용해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도 불편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아 영업사원 '오토 컨설턴트'로 불러주세요

기아는 급변하는 자동차산업과 기아 브랜드 리랜칭 방향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영업직군 명칭을 '오토컨설턴트'로 바꾼다고 9일 밝혔다.

'오토'는 단순 자동차 제품을 넘어 PBV, 자율주행 등 다양한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의미다. '컨설턴트'는 고객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곳에서 고객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뜻한다.

이와 연계해 기아는 기존 영업사원-영업부장의 6단계 직급 호칭도 전임과 선임 오토컨설턴트 2단계로 통합한다.

특히 '오토컨설턴트'라는 명칭은 자동차 판매 업무뿐만 아니라 PBV, 자율주행, 차량구독 등 다양한 모빌리티 제품·서비스의 솔루션 제공으

로 영업 직무의 역할이 확장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새로운 명칭은 이번 달 1일부터 적용됐고, 기아 직영 영업점에 한한다.

앞서 기아는 2019년 9월 미래 경영환경 대응과 기업 문화 혁신을 위해 일반직 직급을 4단계로 축소하고 호칭을 '매니저'와 '책임매니저'의 2단계로 통합한 바 있다.

기아 관계자는 "오토컨설턴트는 기아 모빌리티 서비스의 최전선에서 회사를 대표해 고객을 대하는 직무"라며 "이번 변화를 통해 고객의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모비스에서 꿈 펼치세요

모빌리티 신기술 총집합 'CES 2023'서 글로벌 인재 채용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에서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밝힌 현대모비스가 모빌리티 신기술이 총집합한 CES 현장에서 미래사업을 위한 글로벌 인재 채용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CES 전시공간 내 'HR존'을 별도로 설치해 CES 참가자들에게 회사의 주요 사업 영역과 비전을 알리고 북미에 설치된 기술연구소를 소개했다.

현대모비스 부스를 관람하던 글로벌 방문객들이 QR코드로 현대모비스 인재풀에 자신을 등록하면 추후 해당 분야 인재 영입이 필요할 때 우선 고려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북미 연구소와 분사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응대하기도 했다.

6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주요 대학에 재학 중인 공학계열 석·박사급 유학생 38명을 현대모비스 부스로 초청해 모빌리티 기술 개발 성과 등을 소개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참가한 유학생 중 학사일정과 전공이 요건에 부합해 입사를 지원한 이들도 있어 현장에서 즉석 면접을 보기도 했다.



현대모비스 글로벌 인재 초청 행사에 참가한 유학생들이 현대모비스 전시관을 방문해 미래 PBV 콘셉트 모델 '엠비전 HI'와 '엠비전 TO' 등 전시된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제공>

이같은 현지 채용활동은 현대자동차그룹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미국에 전기차 생산공장을 신설하는 등 북미에 생산 거점을 확대해 현지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주요 부품 및 플랫폼 공급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로서도 현지에서 담당할 연구 과제가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도 이번 CES에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북미에 PE(power electric) 시스템과 모듈, 배터리 시스템 공장 등 총 5곳의 전기차 전용 부품 생산거점을 새로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1회 총전에 1200km 주행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23' 메르세데스-벤츠 전시관에서 방문객들이 전기 콘셉트카 '비전 EQXX'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해당 모델은 1회 총전에 1200km를 주행할 수 있고, 1kWh당 약 12km의 전비 성능을 갖췄다.

<연합뉴스>